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농경시절부터 풍요와 힘의 상징이었던 흰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임직원을 비롯해 전국의 산업보건 관계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초반 K-방역은 성공적인 듯 보였지만, 겨울 방역에 실패하면서 대한민국은 아직 위기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나면 코로나19는 잡히겠지만, 위기의 여파는 2021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한 해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했습니다.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기회로 삼기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을 펼쳤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원·하청 불공정거래 극복'을 위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법 제정 활동을 펼치는 등, 중소기업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은 지난해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함께하는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인해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장치입니다.

2021년, 순탄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단결하고 연대하면 극복할 수 없는 위기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산업보건 전문가 여러분

한국노총은 현장을 향한 눈과 귀를 더 크게 열고,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안전보건 문제에 있어서도 더 이상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상처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보건 전문가 여러분들의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쓴 충고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때로는 든든하게 때로는 매섭게 함께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은 2,000만 노동자가 모두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삼켜버린 일상을 되찾고,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